

영산강 살리기 이슈 점검

3 저수지 독 높임사업

“홍수 막고 용수 확보” “돈만 먹는 비효율 공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진행중인 농업용 저수지 '독 높임 사업'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찬·반 공방에 휩싸여 있다. '예산만 잡아먹는 비효율적 사업'이라는 반대 진영 주장에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전남 대상 20곳 투입예산 7520억
대부분 저수지 노후화 보수·보강 시급

◇“효과 없는 사업”vs “홍수 예방·수질개선 효과 높다”=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남지역 20곳의 저수지 독을 높여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독 높임 작업이 마무리 되면 7197만6000m³의 저수 용량이 추가로 늘어나도록 계획돼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7520억원에 이른다.

■ 저수지 독 높임사업 추진현황

Table with 5 columns: 저수지명, 소재지, 현재방수높이(m), 증고높이(m), 현재저수량(만m³), 추가저수량(만m³). Lists 20 locations like 장치, 민봉, 유림, 백용, 왕동, 대동, 금천, 임석, 울치, 광주호, 담양호, 나주호, 장성호, 수양, 외동, 문수, 구성, 호곡, 군곡, 용산.



2012년까지 저수지 독 높임 사업으로 현재(98만1000m³)보다 저수량이 124만9000m³ 늘어나게 되는 장성군 유림저수지 일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장성 외 영산강·섬진강 일대 20곳의 저수지 독 높임 사업을 추진중이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학계·시민단체 등은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 만큼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감기갑 의원 등은 사업 대상지인 전국 저수지 96곳 중 73곳(76%)은 최근 30년간 가뭄 및 홍수 피해가 전혀 없었고 영산강 유역의 경우 대상 저수지 14곳 모두 독을 높이더라도 농업용수를 조달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예산만 쏟아붓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농어촌공사측은 다른 전방을 내놓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 그릇을 키우는 만큼 홍수기에는 불어난 물을 가둬 자연재해를 막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인근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노후화된 저수지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최근 이상강우 등 재해에 대비한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적극 내세우고 있다.

농어촌공사측은 또 남는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게 돼 수질 개선 및 인근 지역의 생태계 보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영산강·섬진강 지역은 갈수기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독 높임 사업으로 물 그릇이 커지게 되면 갈수기 때 양질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 하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천화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의사 고려하지 않고 속도전”vs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증가”=환경단체 등 4대강 반대 입장을 펴는 진영에서는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저수지 독 높임 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 해당 지역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최지현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유원일 창조 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 “전남지역에 해당하는 저수지 독 높임 사업 가운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7곳만 보더라도 11개 마을 93가구가 수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물부족이나 홍수문제가 없었는데 이같은 이유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밀어붙여 공사에 들어가는 게 납득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대한하천학회” 등 학계에서는 정부가 저수지를 선정하면서 주민의사(18%)와 환경여건(12%)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견해와 해석은 다르다.

저수지 독 높임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확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지

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마스터플랜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건의 받아 사업 계획에 반영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전남지역 대상 저수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데, 일부 저수지는 안전진단 결과 가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영산강 수계의 14곳 저수지는 1928년~1978년에, 섬진강 수계 4곳의 경우 1930~1988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나주시 봉황면 만봉지구 저수지의 경우 지난 1957년에 조성된 뒤 안전진단 결과 C 등급을 받았고 광주시 광산구 왕동저수지는 D 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C 등급은 기능보강이 필요하고 D 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돼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 추진하는 만큼 효과도 크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수변공원·생태공간 조성...저수지의 대변신

농촌 관광 연계 명소화 사업

화순 ‘세량제(細良堤)’의 경우 전국 사진동호인들에게 ‘별종경 일번지’로 꼽히는 명소. 아찔 험살이 비칠 때 피어나는 물안개와 산벚꽃, 새싹을 틔우는 연초록 버드나무가 잔잔한 저수지 수면에 반영되면서 ‘환상적인’ 장관이 연출돼 전국 사진동호인들이 찾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이같은 장소를 더욱 많이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영산강·섬진강 일대 저수지의 독특한 자연·문화 자원을 테마로 농촌 관광과 연계한 지역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독 높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수지를 단순히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가두어 두는 공간뿐만 아니라 자연

이 지닌 가치를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 광산구 왕동저수지도 독 높임 사업과 함께 인근에 수변공원을 조성, 볼거리가 있고 지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친환경생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업용 저수지 독 높임 사업을 놓고 찬·반 진영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재보다 좋아진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저수지 독 높임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이라는 효과 이외에 저수지 인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공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5th Kwangju Electric Power Sports Meeting. Includes title '제5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 date '2010.5.15(토) 오전9시', location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 and a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like 한국전기공사협회 and 광주광역시.